

# ‘해남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발족

재단법인 발기인총회·창립이사회  
푸드플랜 통합적 정책 기능 수행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영세농 소득·일자리 창출 기여



지난 7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발기인총회 및 창립이사회 후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해남군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 지원센터를 발족한다. 해남군은 지난 7일 군청 상황실에서 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발기인총회 및 창립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남군 최초 출연기관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국가·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남 2030 푸드플랜’의 먹거리 관련 통합적 정책 기능을 수행하는 중간 지원조직으로 운영된다. 군은 민선 7기 국정 중점과제로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기반조성과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해남 2030 푸드플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푸드플랜은 지역 내 농산물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중소농 및 영세농의 소득 증대, 농촌형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가치를 추구하는 먹거리 정책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남군 로컬푸드 직매장은 오는 8월 개장을 목표로 신축공사를 하고 있다. 지역 학교와 보육시설에 친환경 식자재를 공급하게 될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지난해 말 완공됐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로컬푸드 임시매장을 개장, 200여 농가에서 450개 품목을 출하하는 등 소농가 중심의 다품목 생산·공급 체계 구축도 구제화하고 있다. 먹거리 관련 통합적 기능을 수행할 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으로 푸드플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남군은 지난 4월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앞으로 설립 허가 신청, 설립등기, 출자·출연기관 지정·고시를 끝으로 설립에 관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단 직원은 센터장을 포함해 13명기량이며 경영기획팀, 공공학교급식팀, 직매장운영팀으로 구성된다. 6월까지 재단 직원 채용과 함께 하반기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 일정에 맞춰 재단법인을 출범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해남군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 실현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활성화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무안황토건축문화재단 창립...황토 산업화·황토건축 활성화 이끈다

정관·사업계획·예산 등 의결

무안황토의 산업화에 서고 특화된 황토건축 문화를 활성화할 재단 설립이 가시화 되고 있다. 무안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재단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안황토건축문화재단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설립취지문 채택과 정관,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제 규정 등을 심의·의결함으로써 재단 출범을 본격화했다.

황토건축문화재단은 지역의 대표 향토자원인 무안황토의 산업화, 특화된 황토건축 문화 활성화, 황토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군은 재단 설립을 위해 설립 타당성 용역과 전남도 및 무안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공개모집을 통해 임원을 구성했다. 이어 전남도의 재단 설립허가와 법인 설립등기, 직원 채용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재단을 공식적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재단에서는 설립 초기 안정적인 정착과 황토건축문화 보급·확산을 위한 무안황토건축아카데미 운영, 황토메이커스 생활 소품화 등 교육사업을 추진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산 군수는 “황토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황토를 군 특화브랜드로 성장시키기 위해 무안황토건축문화재단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

무안황토의 산업화에 서고 특화된 황토건축 문화를 활성화할 재단 설립이 가시화 되고 있다. 무안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재단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안황토건축문화재단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설립취지문 채택과 정관,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제 규정 등을 심의·의결함으로써 재단 출범을 본격화했다.

# 목포복지재단 사랑의 밥차 도우미봉사대 발족



목포복지재단이 지난 7일 사랑의 밥차에 자체 도우미봉사대를 구성, 활동에 들어갔다. 도우미봉사대(대장 최수일)는 10명으로 일반 봉사자가 하기 힘든 식기와 음식운반, 배식장 청소, 반찬배달, 잔반 및 쓰레기 처리, 사후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재단은 특정 단체가 사랑의 밥차에 관여해 자원봉사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봉사대를 구성했다. <사진> 목포복지재단은 소외계층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주 1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사랑의 밥차를 8년째 운영하고 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 완도 객사서 ‘가리포 500주년...’ 프로그램

문화재청 생생문화제 사업 선정  
중학생 대상 강연·다례 체험 행사

완도군이 전남도 문화재자료 109호인 완도 객사에서 ‘2021 생생문화제 사업’의 하나인 ‘가리포 500주년 조선수군과 노닐다!’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다. 문화재청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생생문화제 사업은 지역 문화재를 지역민들이 역사와 전통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기획됐다. 군은 지난 2020년 공모사업에서 ‘가리포 500주년 조선수군과 노닐다!’ 프로그램이 선정된 후 사업을 추진했다. 가리포포는 완도읍 군내리 일원을 일컬으며

1521년(중종 16)에 설립 되고, 1895년(고종 32)에 폐진된 서남해안의 중요한 수군 진성이다. 프로그램은 지역 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역사알기 강연, 전통 다례 체험, 액자 만들기 등이 진행된다. 앞으로 군은 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7월과 8월에는 ‘가리포랑 놀자’라는 주제로 음악 콘서트를 2회 개최하고, 9월과 12월 중에는 ‘가리포 어디까지 알고 있니?’라는 주제로 문화재 답사를 2회 진행할 예정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국내 유일 도서 수군객사인 완도객사에서 가리포포진 설립 500주년을 맞아 더 뜻깊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수칙 준수는 물론 지역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진도군은 지난 3일부터 나흘간 해양경찰과 진도군 어업지도선, 어선 7척 등을 동원해 총 100t의 양식 시설물을 수거·처리했다. <진도군 제공>

# 진도군 나흘간 해상 양식 쓰레기 100t 수거

진도군이 해상에 표류하는 쓰레기 100t을 수거했다. 10일 진도군에 따르면 파손된 다시마 양식 시설물이 조도면 장죽도 해상에 떠다니며 전복과 톳, 김 양식장 2차 피해 우려가 커지자 신속하게 인력과 장비를 투입, 수거했다. 지난 3일부터 나흘간 해양경찰, 진도군 어업지

도선, 어선 7척 등을 동원해 총 100t의 양식 시설물을 수거·처리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해경 등 관계기관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피해 예방 체계를 상시 구축하고 있다”며 “어업인들도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상 양식 시설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